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2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정환 정보통신정책과장(2110-4801), 송주호 서기관(4803), 박태완 사무관(4793)	

2011년, IT융합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키로

- 지경부, 12.20(월) 제4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 내년에 IT산업에 총 1조 2천억 원 예산 투입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011년을 IT융합 선도국(leader)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보고 'SW-시스템반도체 동반성장 전략' 등 **IT융합 핵심역량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음

○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주재로 **12.20(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차 'IT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IT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음

□ 최경환 장관은 이 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금년은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와 아이폰 충격으로 **어렵게 출발**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많았으나, 오히려 **IT산업이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다"며,

○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 **외부 여건이 좋았던 요인**뿐만 아니라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태블릿PC 조기 대응 등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높이 평가함

* 11월까지 **수출 1,409억불**(28.5%↑), **흑자 721억불**(35.2%↑) 전년보다 크게 증가

○ 특히, 휴대폰은 **스마트폰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금년 들어 감소했던 생산·수출이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강조

* 스마트폰 수출(10.11월 누적)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56억불(166.5%)**
*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 ('09) 4.2 → ('10.1Q) 5.4→ (2Q) 6.4→ (3Q) **10.6**
** 휴대폰 : 생산(10.9월 누적) △6.2%→(10월) **4.0%**, 수출(10.9월 누적) △16.8%→(10월) **2.1%**

○ 또한, SW, 시스템반도체, PC 등 그간 **부진했던 분야의 뚜렷한 수출증가세***, **IT 중소기업의 사상최대 수출실적****,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하는 **IT취업자 증가율***** 등 **IT산업의 동반성장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강조**함

* 수출증가율 : SW(10월 누적) 16.3%, 시스템반도체(11월 누적) 30%, PC(11월 누적) 121%
** IT 중소기업 수출 : ('09년) 179억불(△9.3%) → ('10.11월 누적) 237억불(28.5%)
*** '10.3Q 전체취업자 수는 1.6% 증가한 반면, IT는 140만명으로 6.5% 증가

○ 아울러,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함

① 2011년 IT산업 성장 전망

□ 지식경제부가 이 날 안건으로 발표한 「2011년 IT산업 정책방향」에서 내년 국내 IT산업은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성장 둔화(3.5%)와 금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생산 3.0~3.8%, 수출 5.9~9.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民·官 협력 대응**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11년 목표치인 **생산 5%, 수출 10% 성장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기관별 전망(%, 생산/수출) : KEA(3.2/5.9), KIET(3.8/9.8), SERI(3.0/8.0)

○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정체와 시장점유율 포화로 **생산·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나, 앞선 공정기술과 고부가 제품(모바일 D램, AMOLED 등)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반도체 : 생산증가율 ('10) 46%→('11) 2.2%, 수출증가율 ('10) 62.7%→('11) 3.5%
* 디스플레이 : 생산증가율 ('10) 55%→('11) 8%, 수출증가율 ('10) 28%→('11) 9.3%

○ 휴대폰은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와 세계 2위의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생산·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휴대폰 생산(조원): ('10) 46(△3.5%)→('11) 47(2.4%), 수출(억불): ('10) 252(△12.2%)→('11) 259(2.9%)
* 스마트폰 생산(조원): ('10) 6(142%)→('11) 9(45%), 수출(억불): ('10) 66(224%)→('11) 101(51%)

○ 반면, SW와 시스템반도체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규 서비스 해외진출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관련 제품 수요증가로 '10년에 이어 **계속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증가율 : SW ('10) 16.5% → ('11) 16.1%, 시스템반도체 ('10) 28% → ('11) 10.4%

② 우리 IT산업의 구조적 문제

□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IT산업의 문제점을 △**IT융합 핵심역량 부족**, △**부품소재·장비 산업 취약**[*], △HW위주의 **3대 주력IT에 편중**된 불균형 구조[**]라고 분석

* 메모리, 디스플레이 세계 1위이나 반도체장비는 20%만 국산화,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TAC, PVA 필름 등은 전량 수입

** 3대 주력IT(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가 전체 IT수출의 71% 차지

○ 매년 11.8% 고성장으로 세계 IT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IT융합**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HW경쟁력을 토대로 SW와 시스템반도체 등의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

* 임베디드SW 국산화율(%, '08) : 휴대폰 15, 자동차 5, 조선 4, 국방 1

③ 2011년 IT산업 정책 방향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그간의 **추격형(follower) 방식에서 탈피**하여 **IT융합 선도국(leader)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IT산업에 올해보다 11.3%(1,240억원) 증가한 **총 1조2,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주요 분야 '11년 예산(억원) : SW 1,900, 시스템반도체 723, 디스플레이 581, 모바일 962

□ 그간 개별적인 육성책만 추진했던 SW와 시스템반도체를 상호 연계하여 **자동차 등 대상 주력업종에 맞춘 'SW-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IT융합 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특히, 'SW-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전략'은 인력·자금수급, R&D, 기업성장 등 **경쟁력 결정요인**과 **핵심 SW-SoC 개발 필요성**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할 계획

○ SW 자체로는 기존 **WBS**(World Best SW) 예산을 **4배 이상 확대**[*]하고, SW마에스트로 등 최고급 인력양성을 늘리고, 하도급 대금직불제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WBS 예산 : ('10년) 240억원 → ('11년) 1,000억원

○ 시스템반도체도 설계전문 업체인 팹리스(Fabless)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R&BD를 추진**[*]하고, 잠재력있는 **'스타 팹리스'를 파격 지원**[**]

* '11년 신규 예산으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150억원 지원

** 총 10개社 지원을 목표로 '11년에는 3개社 지원(기업당 5년간 총 500억원)

□ 스마트TV, 가상·증강현실, LED융합, 홈랜드 시큐리티(IT+보안) 등 **IT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스마트TV 발전전략('11.1월),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방안('11.11월), LED융합 산업 발전전략('11.3월),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방안('11.5월) 수립

○ IT융합 신제품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IT혁신센터' 등을 확충**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연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 도입('11.6월)과 융합 혁신을 주도할 **창의 IT융합 인재 양성**[*] **확대**

* IT명품인재양성 1곳 및 대학 IT융합연구센터 3곳 등 추가 선정('11년 177억원)

○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원을 확대('융합 신산업 육성자금' 신설 등)하고,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와 **Fast-Track 인증** 실시

□ IT융합 촉진에 필요한 **Giga급**(1Gbps) **통신환경** 구축을 앞당기고 관련 **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Giga Korea 전략」**('11.6월)을 **다부처 공동**[*] **과제**로 추진

* 국과위를 중심으로 지경부를 주관부처로 교과부, 방통위, 문화부가 참여하여 상세기획 중

○ 통신, SW,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 및 장비를 국산화**하고, 이를 국내에 선도 적용·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 기획 중

□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 非방송사 분야에 국산 방송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전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 수립**('11.3월)

○ **국산 통신장비**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강화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등 수요산업이 성숙하여 발전방향이 예측이 가능한 분야의 장비는 **수요연계형 국산화 개발***을 추진

* (반도체) 20nm이하 핵심 전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세계최초 11세대급 LCD 장비, (LED) 에피성장장비(MOCVD) 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 등 개발 추진

○ 아울러, 융합 제품의 **후방산업인 센서, 레이저, 인쇄전자***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 인쇄전자는 프린팅공정을 이용해 전자회로·센서·소자를 제조하는 차세대 기술로서 플레서블 디스플레이, RFID, 솔라셀 등에 적용 가능

□ 매년 3만명의 IT 학사가 배출되나,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기업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역량 집중**

○ 산업 요구가 반영된 **IT교과과정 新모델 마련**, SCI 논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수평가제도 개선안 마련**, 기존 자격증을 대체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IT인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 IT교육 개선방안'을 수립**(11.3월)할 계획

□ 장비·재료의 해외 의존도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제고가 요구**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는 **양질의 자금지원 확대, 공동개발 성과 확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 전략** 추진

○ 삼성, 하이닉스 등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펀드(1,500억원)를 조성**하고 **상생보증 프로그램*** 지원 범위를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수요 대기업이 신보·기보 등과 함께 협력업체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 **장비**(1차)**-부품**(2차)**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R&D를 '11년 신규 도입**하여 국가 R&D 성과가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도록 추진

○ 수요 대기업-지경부-협회 간 **업계 자율협약 체결**('11.3월)로 **1차 중소 장비업체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며, 대기업이 구두로 제품개발을 제안하는 **간접발주를 지양하고 문서화 유도**

□ 스마트폰 성장에 대응하여 **4세대(4G) 이동통신 상용화**와 **4세대 이후(B4G)의 원천기술 개발,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11.1월)

○ 4G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개 시연**('11.1월)하고, **4G 베이스밴드 모뎀칩 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추진('11.5월)

○ 모바일 통신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4세대 이후(B4G)의 새로운 무선통신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

○ 모바일 관련 기업 및 생산시설이 밀집된 지역(구미)에 **새로운 모바일 융합 신기술을 발굴·테스트**할 수 있는 **최신 설비와 지원체계** 구축

* 모바일 융합 필드테스트를 위해 TDD-LTE, WiBro-adv. 등 최신 장비 구축('10~'14년, 1,257억원)

○ **모바일-클라우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11.2월)하고, 서비스 간 호환성 표준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범부처 합동의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11.6월)

* 가상화 기반 데스크탑 기술, 퍼스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등

※ 상세 자료는 별첨 안건을 참조

< 별첨 1 > 2011년 주요 IT정책 추진계획
< 별첨 2 > 제4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요
< 별첨 3 > IT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별첨1 2011년 주요 IT정책 추진계획

구 분	정 책 명	시 기
IT융합 핵심 역량 확보	SW-시스템반도체 동반 육성전략	'11.6
	소프트파워(SW, SoC 등) 글로벌 진출전략	'11.3
IT융합 신산업 육성	스마트TV 발전전략	'11.1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방안	'11.11
	LED융합산업 발전전략	'11.3
	RFID 확산전략	'11.1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방안	'11.5
	Giga Korea 전략	'11.6
IT 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	'11.3
	센서산업 발전전략	'11.3
	인쇄전자 발전전략 및 기술로드맵	'11.9
	레이저산업 발전전략	'11.5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대학 IT교육 개선방안	'11.3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	'11.1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11.6

별첨2 제4차 「IT 정책자문단」 회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IT분야 오피니언 리더, 舊정통부 장·차관, 정부의 IT정책에 관한 건전비판 인사 등을 **우리부 IT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

○ (경과) 노준형 산업대총장 등 産·學·언론 민간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분기별 회의 개최

* 제1차(3.30) 「IT산업 정책 방향」 발표, 제2차(6.25) 「IT산업 글로벌화 전략(안)」 발표
제3차(10.6) 「IT산업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과제」

2. 제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2.20(월) 18:00～21:00, COEX 317호**

※ 코엑스 회의실에서 안건 발표·토론 후 식당으로 이동

○ **참석 : 장관님,** 성장동력실장, 정보통신국 국과장, **자문위원 20명**

○ **안 건(案) : 2011년 IT산업 정책 방향**

3.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8:00～18:01	1'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담당과장)
18:01～18:03	2'	기념촬영	
18:03～18:08	5'	인사 말씀	장관님
18:08～18:28	20'	안건 발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8:28～19:00	32'	자유토론	성장동력실장 진행
19:00～19:15	15'	만찬 안내 및 이동	사회자
19:15～21:00	1H45'	만 찬	인근 한식당

별첨3 IT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현 보 직	비 고
1	노 준 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前 정보통신부 장관
2	윤 창 번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3	김 동 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정보통신부 차관
4	임 주 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5	정 태 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現 정보처리학회 부회장
6	강 철 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7	김 홍 선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8	김 진 형	KAIST 전자전산학부 교수	
9	김 성 조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現 정보과학회 회장
10	박 준 성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11	조 현 정	비트컴퓨터 사장	現 SW산업협회 부회장
12	황 철 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現 벤처기업협회 회장
13	강 은 희	위니텍 대표이사	現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14	송 혜 자	우암닷컴 대표이사	現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5	조 명 식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	
16	금 기 현	전자신문 대표이사	
17	노 규 성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現 디지털정책학회 회장
18	이 지 은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9	박 진 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現 통신학회 부회장
20	김 달 수	티엘아이 사장	

* 불참 위원(2명) : 황철주, 김달수